

가이판 관내에 민중학생

社說

가이판 관내에 민중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이판은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민중학생의 입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학생의 입학은 단순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의 확충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이판 관내에 민중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이판은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민중학생의 입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학생의 입학은 단순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의 확충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원



〈時事論壇〉는 1955년 10월 13일 창간된 이래로,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평과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시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지는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하며,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特委) 어디로 가나



조시활동 결코다 관할할 수 없는 국민적 관심의 활동성 패 좌우

국회(特委)의 구성과 임명 과정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위의 구성과 임명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위의 구성과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위의 구성과 임명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회(特委)의 구성과 임명 과정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위의 구성과 임명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위의 구성과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위의 구성과 임명은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8.15 독립 특평 평가

8.15 독립 특평은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특평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특평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민현기

반외세·통일 의지 확인돼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반외세 의지와 통일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특평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반외세 의지와 통일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특평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행정관리직 직원모집

1. 모집부서 및 응시자격

모집부서	모집부서	응시자격
일반직	서울·경주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사서직	서울	4년제 사서직자격을 소지한 자

2. 모집인원 : 각직 약간명

3. 전형방법 : 필기시험(영어·논문·상식), 면접

4. 제출서류 :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사서직), 원호내상자 보존증명서

5. 예비소집 : 1988. 8. 30(화) 09:30 본관 교수세미나실

6. 시험일자 : 1988. 8. 30(화) 10:00

7.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고사장

8. 지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88. 8. 23(화) ~ 8. 29(월) 17:00

9. 원서접수처 : 서울캠퍼스 총무과 및 경주캠퍼스 총무과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원서 상단에 희망 근무지를 주서로 표기할 것

1988년 8월 일

총무처장

납입금 수납 안내

1988학년도 제2기분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수납기간 : 1988년 8월 18일 ~ 8월 27일 (10일간)
- 수납은행 : 조흥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 수납방법
 - 학교에서 우송된 고지서로 납입하여야 함.
 - 감액처리된 학생은 수납은행 전국 각지점에 납입할 수 있으나, 감액처리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하고 별도로 지정된 수납은행에서 감액 수정하여 납입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전산처리된 납입금 고지서는 제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기간이 경과되면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일

총무처장

공 고

1988학년도 제2학기 복학·재입학 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다 음

- 신청기간 : 88년 8월 18일(목) ~ 8월 25일(목)
- 접수처 : 학적과 제응명교부실
- 구비서류
 - 일반복학자 및 재입학자 : 복학, 재입학 원서 1부
 - 군제내자 :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 1부
 - 다. 군복무증명서 : 복학원서, 전역예정승명서 1부
- 자 격
 - 복학 : 학사내과 4-(2)-1) 2)항에의기 유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군입영후학자로서 재학일로 부터 30일 이내(88.9.20)에 제대할 자. 다만 제대에정일까지 제대하지 못한 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불합격이 취소된다.
 - 재입학 : 학칙제53조(1)·(3)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적되었던 동일학과에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8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제적된 자는 재적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결원에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한다. (재입학 허용기간은 군복무 기간도 포함)

1988년 8월 10일

교무처장

공 고

1988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함.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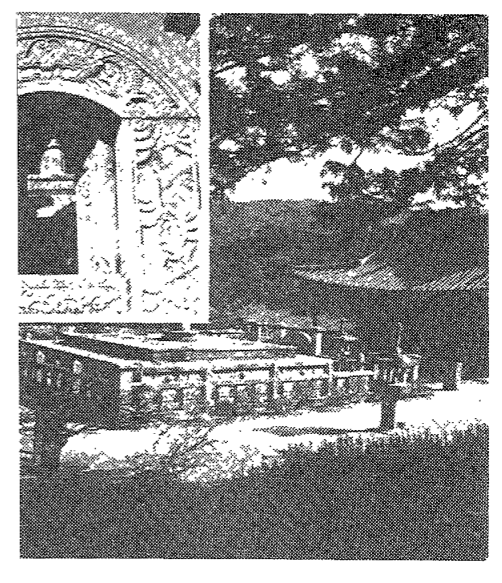
- 시험과목 : 4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공필	21-102	국어강독및작문(II)	2
"	22-104	영어(II)	2
"	14-107	한국사	2
영필	41-122	일반수학(II)	3

- 응시자격 및 과목
 - 자격 : 88학년도 1학년 신입생으로서 2학기 등록을 필한 자 (81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88학년도 1학년 복학생 포함)
 - 과목 : 4과목 중 3과목까지 (단, 6학점 을 초과할 수 없음)
- 시험일자 : 1988년 8월 27일(토)
- 전행료 : 과목당 3,000원 (경리과 수납)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1988년 8월 22일(월) ~ 8월 25일(목) 4일간
 - 장소 : 교무과, 외부대학 교학과
- 합격자 발표 : 1988년 8월 30일(화) 13시(예정)
- 합격자 심적처리 : 합격된 과목의 성적은 A로 인정

1988년 8월 10일

교무처장



『부락지』

『부락지』는 부락지(村誌)의 한 종류로, 부락(村)의 역사, 지리, 인문, 풍속 등을 기록한 것이다. 부락지(村誌)는 부락(村)의 역사, 지리, 인문, 풍속 등을 기록한 것이다. 부락지(村誌)는 부락(村)의 역사, 지리, 인문, 풍속 등을 기록한 것이다.

종단의 자주성과 민주영량시급

종교의 자주성과 민주영량시급. 종교의 자주성과 민주영량시급. 종교의 자주성과 민주영량시급. 종교의 자주성과 민주영량시급. 종교의 자주성과 민주영량시급.

남의 불친척과 북의 침략과제

「전통사찰보존법」 제정과 한구불교의 향방

남의 불친척과 북의 침략과제. 「전통사찰보존법」 제정과 한구불교의 향방. 남의 불친척과 북의 침략과제. 「전통사찰보존법」 제정과 한구불교의 향방.



불교계 내부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한 최영수 대주교

불교계 내부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한 최영수 대주교. 불교계 내부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한 최영수 대주교. 불교계 내부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한 최영수 대주교.

올바른 시각에 일관된 불교이행 연구돼

올바른 시각에 일관된 불교이행 연구돼. 올바른 시각에 일관된 불교이행 연구돼. 올바른 시각에 일관된 불교이행 연구돼.

올바른 시각에 일관된 불교이행 연구돼. 올바른 시각에 일관된 불교이행 연구돼. 올바른 시각에 일관된 불교이행 연구돼.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비주체적 정화는 불교계 발전에 역기능.

Advertisement for Hana Group (韓進그룹)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ship and a truck. Text includes '세계를 잇는 한진의 길' (The path of Hana connecting the world) and '수송보국의 일념으로 세계를 이어온 한진그룹의 외길 40년' (The 40-year journey of Hana Group, dedicated to shipping and national protection, connecting the world). The Hana Group logo is prominent.

지배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진단하며

『배이데올로기』를 읽다
배이데올로기란 지배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 연대투쟁으로 민족통일을”

한민족의 통일과 민족통일을 위한 공동연대투쟁을...



이날 회의는 1시간 30분 동안 열렸으며...

『분단의 모순의 해결만이 차후모순 극복할 수 있어』
분단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민족통일의...

- 1) 분단상황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대립양상
2) 지배이데올로기의 사적고찰
3) 반공 이데올로기의 계급지배적 성격
4) 좌파공산주의 민족지배 이데올로기
5) 민족 이데올로기의 항쟁과 발전
6) 시리아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통일과 체제유지
『가자, 한민족에서 오라 백부에서, 남북은 통일된, 양국은 아프리카로』...

레모나 advertisement for Vitamin C. Includes text: '먹는 화장품?', '아름다움의 요소-비타민C', '피로할때, 기미·주근깨에, 거칠어진 피부에.' and images of the product and a woman's face.

통합이 키치 통합이 서학련이로

1. 통합이 키치

전국학생총연합회(전학련)는 8월 23일(화요일) 서울에서 제1회 전국학생총연합회(전학련)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대표들이 참가하여, 통합이 키치 통합이 서학련이로 결성되었다.

서총련·서건주의 통합의미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서총련과 서건주의 통합이 학생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단결과 투쟁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립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반파쇼 통일전선선의 조직화 시사

연립세력내 분파주의 극복이 선결과제로

반파쇼 통일전선선의 조직화 시사는 연립세력내 분파주의 극복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학생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질적 학생통일전선만이 변혁운동에 도움

실질적 학생통일전선만이 변혁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단결과 투쟁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학생들의 단결과 투쟁을 위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고 평가되었다.

서울 올림픽 왜 거부되어야 하는가

서울 올림픽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다.

국민영양법(국민의 민주적응수)

국민영양법은 국민의 민주적응수를 위한 중요한 법이다. 이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영양법은 국민의 민주적응수를 위한 중요한 법이다. 이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영양법은 국민의 민주적응수를 위한 중요한 법이다. 이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화장품은 피부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첨단피부과학으로 아름다움의 근원을 밝혀가는 아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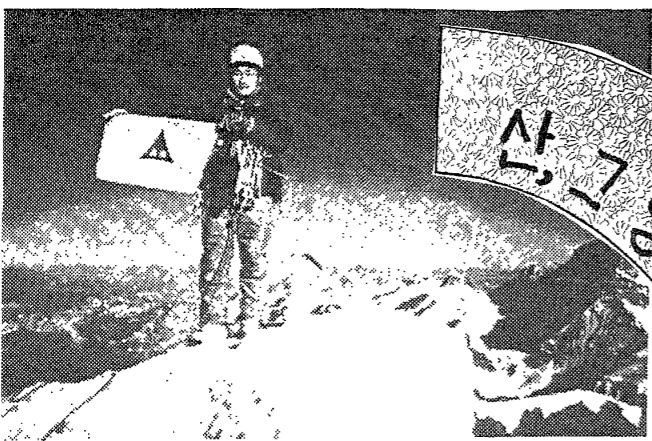
화장품은 최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2,3년 후나 길게는 10년 뒤, 당신이 간직한 피부의 미래는 어떤가요? 나이따라 피부도 함께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젊어질까요?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에 따라 피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부에 젊음의 가능성,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은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화장품 개발에 앞장서 온 아모레는 피부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방물의 물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움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젊음으로 가득찬 피부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운 피부 그대로' 아모레는 한방물의 물에서부터 젊은 피부, 그 생명력의 신비와 아름다움의 근원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세계 4개국 발명특허의 천연보습성분 P.S.L과 국내최초로 생명과학을 응용한 BIO-HE 연구공정 개발, 초비밀자 겹살화 제조공정의 상용, 천연원료 원천조사 화장품 응용 등 아모레는 피부의 미래를 설계, 아름답게 가꾸어 줄 첨단 피부과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아모레퍼미네텐



아이거북 등정기

해, 무엇을 찾고자, 알파인스트는 복수를 걸고 산에 오르는가? 알파인스트란 애초 고난을 뛰어넘고 운명에서 벗어나는 무모한 모험가는 아닌가? 현실을 부정하며 극한의 피안에 안주하려는 현실도피자는 아닌가? 이것은 산악인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또 스스로 반문하는 결론없는 질문이며 나 역시 그 의문을 풀기위해 산에 오르고 있을 뿐이다. 재학생 5명, 졸업생 3명으로 구성된 동국대 산악부의 알프스원정대는 7월 16일 서울을 떠나 알프스 사모니 산에서 현지직원등 7명 24일 사기출현해서 첫 등반에 성공한 아이거북(3,975m)에 도착, 클라이네사야크에 베이시캠핑을 쳤다.

수직표고 2천2m이상을 솟아있는 아이거북이 주는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등반능력이나 체력, 그리고 양호한 현지직원상태등에 의해 자신감을 가질수 있었

다. 그러나 자연이 거부한다면 인간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음이 하부에도 여러번 바뀌는 기구가 등반의 열쇠라 생각되었다.

7월26일 종행이행 (81학년 건축공학 4)영석(83학년 체육교육 3)영우(87학년 무역학과 2)와 나 이렇게 4명이서 디코펠트르까지 정장등반을 다녀왔다. 생소한 석회암질의 바위로 개져 나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는 더했다. 27일 새벽 4시 종행과 나 는 드디어 아이거북의 도전에 나섰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바라는 복벽이 마치 커다란 폭포와 같다. 첫번째로 복벽이 거부하는 것일까? 비는 세차게 더욱 내려부어 베이시와 고신수 텐트를 밝히고 철도공사노래를 부랴부랴 하며 내려가 버려야 했다. 7월28일 새벽 4시 기상시간은 18시, 커다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날씨가

밤을 먹으니 힘이 솟는 것 같고 헤드랜턴불빛을 밝히며 북쪽하단부호 향하는 캄캄한 철도 터널에서도 종행과 나 는 같이 갔다.

지금 우리는 아이거북벽을 오르기 위해 걷고 있는 것이다. 새벽 5시30분 등반을 시작하여 내가 짐을 가버리게 되었고 돌로 오르려고 하니 나 머지 짐을 지고 뛰어왔다. 디코펠트르까지가는 와본 길이라 낯설지 않다.

제 1설원과 2설원을 연결하는 얼음판도로에서는 바위에 얼음이 얼어있어 아이젠을 신고 혼합클라이밍으로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2설원은 울퉁불퉁한 아이젠을 꼭꼭하니 올라갈 때 바 오면쪽 120cm정이었다. 시간은 18시, 커다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날씨가

지 기기로 하고 왼쪽으로 계속된다 양호한 비박지를 발견했다.

그곳은 캄페 못이진 지평이었다. 오버랩 밑의 눈을 다지고 장비를 벗어 달아놓으니 20시 30분 무렵에 쫓겨나기도 하듯 미친듯이 올라왔으나 역시 아이거는 큰 벽이었다. 총총한 발하늘의 별과 클라이네사야크와 그린덴발트의 불빛을 보며 흥겨워하는 알파인과 차맛은 이런 곳에 매달려 먹어본 이란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베이시캠핑과 주전교신하니 내일 오전 남까지 총과 해서 새벽에 등반을 시작해 내일 정상을 시기로 하고 고어텍스 침낭커버를 뒤집어쓰고 잠을 청하니 몸은 흥고 자라는 흥과 불면해서 잠이 오지않아도 마음만은 따뜻하고 땀까지 가득 차 있었다.

7월29일 새벽 2시 기상하여 캄페를 합동해 등반하고 신들의 트레버스 끝내 14시30분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하늘에서 우박과 눈보라가 몰아치고 가스가 끼어서 행이 안보이는 정도이다. 머시안 등반이 불가능한 5km로 얼음판도로의 상태는 말라붙어 하한 4개를 지고 비박하기로 했다.

7월30일 새벽 2시 기상하여 모든장비가 얼어있고 몸도 역시 얼어있었다. 장비를 얼음판도로 넘어 가는 데는 한시간 이상이 소비되었다. 정상까지 통하는 하얀겨레로 점어들기위해 신들의 트레버스로 하강해 기다리니 형이 하한 몇개를 빼는 지 꼭 따먹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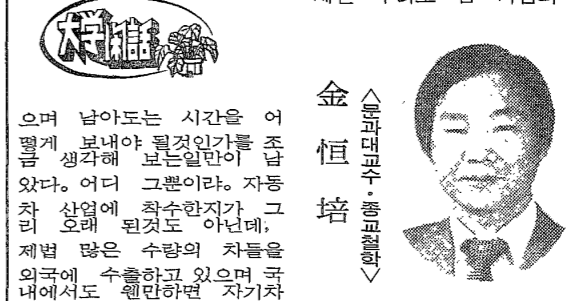
혹사하니 나 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1초도 안되는 사이에 종행이행이 내 옆을

스쳐 북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서늘함에 북반쳐 소리내어 우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가장 참아하던 형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지도, 같이 떨어지지도 못한채 어쩔할 방도가 없었다. 한순간 마음을 굳게 먹고 헤드랜턴으로 베이스에 주신호를 보낸후 북벽에 홀로 매달려 있는지 4시간30분만에 구조형기가 북벽으로 날아왔다.

구조되어 클라이네사야크에 내려 영석씨와 환기형을

마음의 풍요

우리 사회가 많이 풍요로워졌음은 누구나 실감하는 일이다. 백화점에 가면 어떤 것까지 볼일이 없을까? [한번쯤]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풍경이 되고 있다. 이렇듯 풍요로운 사회에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꾸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좀 마음의



김현

우머 남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자못 차 산업을 확충시키지 않는다면, 제법 많은 수량의 자원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웬만한 자재차들 일부도 구입할수 있다.

그래서 구멍가게 주인도 자기들이 있으며, 각종 수리공들도 유통업이 발달하는 시점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들을 수입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렇듯 풍요로운 사회에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꾸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좀 마음의

정년퇴임 인터뷰 남은 생활도 동국을 위해

『제 100회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특집』

『제 100회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특집』

『제 100회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특집』

『제 100회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특집』

『제 100회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특집』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화만신

『동화만신』

『동화만신』

『동화만신』

연영과 공연

『연영과 공연』

『연영과 공연』

『연영과 공연』

예술대 원고모집

『예술대 원고모집』

『예술대 원고모집』

『예술대 원고모집』

대학원생 논문집

『대학원생 논문집』

『대학원생 논문집』

『대학원생 논문집』

고전극연구

『고전극연구』

『고전극연구』

『고전극연구』

대학연합 서예전

『대학연합 서예전』

『대학연합 서예전』

『대학연합 서예전』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연영과 공연

『연영과 공연』

『연영과 공연』

『연영과 공연』

예술대 원고모집

『예술대 원고모집』

『예술대 원고모집』

『예술대 원고모집』

대학원생 논문집

『대학원생 논문집』

『대학원생 논문집』

『대학원생 논문집』

고전극연구

『고전극연구』

『고전극연구』

『고전극연구』

대학연합 서예전

『대학연합 서예전』

『대학연합 서예전』

『대학연합 서예전』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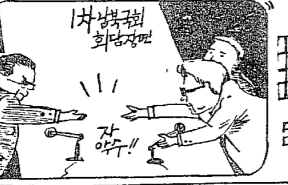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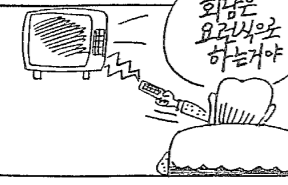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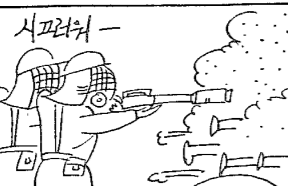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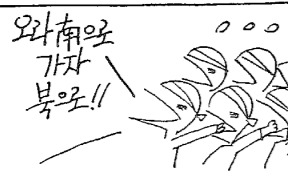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동학의 심장은 도서편이며

어로니

오 황 <68>



공 조 허정만 작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관객과 아름, 그리고 눈물겨운 희망을 노래한 시인 허정만의 다섯번째 시집 『공조』가 나왔다.

『사람이 하늘에게』 『아름을 위하여』 『타는 그네와 내 사이』 등 66편의 시가 실려 있는 이 시집은 서민들의 실생활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생활상을 생생적으로 표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고발해내고 있다. 인간다운 세계를 회복하고 인간이 정취해오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전면에 펼쳐 담겨져 있다.

<문학세계사 113면·2천원>

사회주의 문화정책 인식의 장

시대상황극이 풀어야 할 과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의 문화운동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돌출되어 확산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필연적이며 사회·역사적인 이유가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특히 대화가 중심이었던 60년대에 그 대상을 보았던 마당극을 통한 문화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그 필연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마당극 또는 마당극이라고 불리웠던 문화운동도 60년대를 그 시점으로 보았을 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이 온 사회 문화적 재변화에 의해 마침내 그 진전을 보아 오늘에 와서는 기성 연극에 예까지 그 영향을 미쳐 신선한 자극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굳이 『시대상황극』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80년대를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민주화 바람을 타고 새 세대가 많이 나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들어와서 가장 큰 공헌을

구호일변도의 도식적 행위를 지양하고 예술적 승화로 상황극 정착시켜야

행사로 민족극 한마당이 있었으며 여기에서 선보인 『금희의 오월』 등 일련의 시대상황극이나 기성극단에서 한동안 인기를 누렸던 『칠수와 만수』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신문문화처럼 세대를 풍자한 작품들이 관객들의 요구와 연극을 통한 사회운동적 성격과 맞닥뜨려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연극계의 분위기도 최근들어서 창작극이라든가 예외 시대에 상황극인 것처럼 폭넓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연극계의 극적 형식 방식이 대부분 우리의 전통연극의 구조를 인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시대상황극 자체가 마당극을 모방한 성격이나 맥락에서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극이란 민족적 기반에서 연극적인 생명이 창출되어 사회교육적인 연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유익 가치가 있게 여기에서 여러 실정악시와 맞닿아 표현된 것이 대화가 연극운동이었다.

이는 식민사관이나 문화사대주의적인 사관에서 탈피하여 전통연극을 그 정신과 내용·형식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움직임으로 이것이 지금의 시대상황극으로 발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정치, 사회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갈등을 공동체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여기에서 성취된 사회의식을 삶의 건강성으로 되돌리자는 연극정신의 발로라고 하겠다.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점차 확산되어 기성연극계의 공연이 유희와 오락을 타고 그 영향은 단순히 문화운동에서 예술적 차원의 변화로서가 아닌 연극 정서의 면모는 구원이 가능한 체계가 확립되어 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발전의 가속화와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었던 점과 정치적 상황으로 자유의사가 그동안 막혀 있었으나 시대상황극은 진실을 토로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양식적 측면에서 민중언론 매체로서의 기능까지도 담당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의 반면에 시대상황극은 그 자체로서 앞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과제들도 많다. 대체로 이러한 극들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전횡화가 두드러진

러진 등장인물을 창조해 등장인물을 통해 총체적이고 회화적인 대사나 동작으로 극을 이끌어나간다. 여기에서 간혹 재담이나 춤·노래·육설·사위 등이 이어지는 민중극의 공연기법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너무도 도식적이고 구호일변도의 극중 대사나 동작을 극박하고, 다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현실을 설명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상황극』 자체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즉 예술적인 승화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리한 문화운동으로서의 존재가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연극운동은 그동안 상실되거나 변질되어 온 가난 민중적인 문화 창조력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공동적인 체질을 소유한 민중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교육적인 연극의 기능으로서의 노력의 결실이었기에 발전할 수 있는 연극의 양식적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

다만 구호일변도의 시대상황극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 즉 도식적인 연극 행위가 민중과의 친화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비연극적 요소로 지양, 극복하여 예술적 승화를 거듭하여 한국적 연극양식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대상황극이 마치 사회의 문제의식해소의 필요에서 나온 일시적인 연극적 현상으로 보려는 일부기성연극계의 관점도 시대상황극의 예술적 승화를 위한 환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강 렬
<연극평론가>

우리는 결코 돌릴 수 없다

「다리 반쪽은 내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어 줄 걸라라 흐르는 뜨거운 물결을 확인하고 싶어!」 한 본회의 요구는 집권자들의 안보논리를 뒷받침 해주는 틀리기에 의해 원천봉쇄되고 있다.

『지난 6·10회담의 오류들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있는 이번 「8·15 남북 청년학생회담」은 학생뿐 아니라 재야 일반대중들에게도 그

해운 제5공화국 비리,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손·李부부 구속수사요구, 울림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수탈당하고 있는 기층민중들의 생존권 투쟁과 연계 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권층은 극토순례기간중 총연행자수가 8천명을 넘는다는 가히 금메달(?) 기록을 세우며 최고 집권자는 이에대해 『폭력과 화염병이 난무하고 인



공강의 폭을 확대시켜 갔으며, 통일은 어느 특권층의 특권이 아닌 민족의 결집된 의지속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논의되어야함을 재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지난 40년간 통일은 집권자들의 독재체제구축을 위한 한 방면으로서만 사용되었다.

반민중적, 반민중적이라 규정지어지는 미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에서 나온 울림을 30여일 앞두고 강행된 이번 극토순례 8·15회담은 그에대한 음정자 8년간 국민들을 기만

민중화국 만세를 부르는 학생들을 보지만 있을 수 없다』며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통일은 결코 집권층의 한두 사람의 머리로 해결될 일이 아니요, 전 민족의 열연인 동시대에 통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분단조국을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들에게 살아야 할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의의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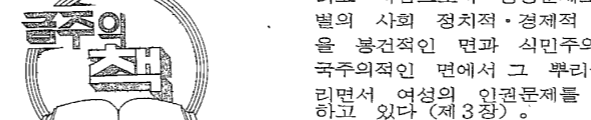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을 뒹굴고 땀을 흘려야 했다.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이들도 있었고, 현실로 결의의 재확인 하며, 푸른하늘에서 평평하게 하얗게 퍼지는 최후의 가루를 보며 본 취재자는 배우와 한라에서 용솟을 채 살아오는 통일의 함성을 들을 수 있었다.

<김미진기자>

살아가는 현장의 문제... '인권'

이강렬 <연극평론가>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라스웰은 각 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어느 쪽의 정치 체제인 나라 자체가 하나의 '병역화', '갑박화'가 되어 갈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73년 엘네스티(국제사법위원회)는 <고문보고서>에서 고문이 법외인 가려내는 수단으로서 보다 정치적 위험과 탄압 및



러한 접근에 의한 인권문제의 현장을 다룬 책이 인권법 교수 <현대의 인권>이다.

이 책을 보면 인권을 법제·정치·역사와 그 의의·사상에서 다루고 있으며(제1장), 신체의 자유와 고문의 문제를 정치·사법적 배경과 사법부의 기능이 한 면에서 우리 현실문제를 들어서 다루고 있다(제2장). 그리고 사람으로서 평등문제와 차별의 사회·정치·경제적 기원을 통괄적인 면과 식민주의·제국주의적인 면에서 그 뿌리를 가리면서 여성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제3장).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지은이가 1987년 고오백에서 『세계법 사회철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인 <신생국의 탈식민주의와 법론론>가 주목된다(제6장). 이밖에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 법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면과 관련시켜서 다루고 있다(제7장).

종래의 법해석론적 인권론의 시각을 넘어서 문제를 제기한 이 책은 법론에 깊은 이해가 없는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쓰여지고 있는 것은 한고수 특색이 있는 필통 활동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다.

구 병 석
<고려대 교수·헌법>

남북대화

다. 84년 9월 서울 대동수로 북한측의 수재물자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남북대화는 다시 활기를 띠고 85년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 등 진전을 보이는 듯싶더니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스즈난 7월 우리 국회에서 여야 단장원칙으로 의결한 북한측의 『서울올림픽참가 촉구결의안』을 북한측이 접수함으로써 진전된 『남북국회회담』이 남북

대화의 3기를 맞고있는 셈이다. 기대가 큰 반면 결과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3차례에 걸친 준비접촉이 양측의 팽팽한 자기입장 고수로 결렬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어찌 않은 3차 준비접촉에서 남한측은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는 문제와 공동개최하는 문제, 불가침협정체결문제와 선연문제, 남북적십자회담·경제회담개최 등 교류

남북대화

를 실현하는 문제들을 수정제의했다. 이에반해 북한측은 불가침협정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올림픽에 남북이 북측을 초청하는 문제와 남북공동개최하는 문제를 남한측이 받아들일 경우 남북사회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의제로 추가할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각각의 기본 주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회담의 결실면에서도 남측이 대표와 체육관계자가 참석하는 분회담을 주장하는 반면 북측은 연석회의에서 한반도 불러스러 하지 않고 있다. 스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결코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라해도 지나치게 我田田의적의 주장을 양측이 보이고 있다. 통일과 분단극복의 의지가 진정이들에게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통일의의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가가 막힐 노릇이다.

<경>

GoldStar

종합 일렉트로닉스 세계 No.1

GoldStar Computers & OA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新記錄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 新技術에 도전하는 금성의 의지

신기술개발로 풍요로운 생활을 앞서 개척해온 금성이 '88서울올림픽에서도 기술한국의 대표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금성은 첨단컴퓨터 및 정보처리기술로 원활한 경기운영을 뒷받침하는 물론 종합기술력만이 가능한 올림픽 종합정보망의 구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금성은 이제 한국의 기술에서 세계의 기술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

- 금성사
- 금성반도체
- 금성소프트웨어
- 금성부품
- 금성통신
- 금성전기
- 금성알프스전자
- 금성정밀
- 금성산전
- 금성계전
- 금성기전
- 금성해나일
- 금성관선

Technopia

금성의尖端技術이 펼쳐가는樂園